

2012년 대만 대선과 마잉주정부의 대내외정책 전망*

문흥호**

- I. 서론
- II. 대선의 주요 쟁점과 정당별 정책
- III. 대선 결과의 주요 특징
- IV. 마잉주 정부의 대내외정책 전망
- V. 결론

요약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자 대결 구도를 보인 대만의 2012년 대선은 마잉주 현 총통의 당선으로 귀결되었다.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는 청렴하고 혁신적인 이미지로 마잉주를 추격했지만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다. 대만인들이 마잉주를 선택한 배경은 양안의 '평화'(92 共識)와 '공영'(ECFA)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재임 이후 마잉주 정부는 첫째, 중국과의 평화공존, 경험 확대를 지속할 것이다. 둘째, 해기회·해협회, 국민당·공산당의 '당 대 당' 접촉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소모적 독립외교보다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실용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마잉주의 친미적 성향을 바탕으로 대미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지만 미국산 무기의 대량구매,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 편승 등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핵심어: 대만대선, 국민당, 마잉주, 양안관계, 평화·공영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9-362-B00001).

**한양대학교 교수

I. 서론

중화민국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 시점인 2012년 1월 대선에서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후보가 연임에 성공했다. 2000년, 2004년 국민당 총통 후보였던 쑨롄(連戰)의 연패로 무기력하고 노쇠한 모습을 보였던 국민당은 2008년 3월 마잉주의 후보의 당선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당시 국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은 마잉주 자신의 개인적인 배경, 경쟁력과 함께 부패하고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일신한 국민당의 자기혁신의 결과였다. 총통 취임 이후 마잉주는 자신이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대만의 경제적 부활(光富臺灣)과 이를 위한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그리고 대만인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삼안(安定, 安心, 安全)의 실천에 주력했다. 특히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만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중국과의 경협 확대를 상징하는 ‘일중시장(一中市場)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며 2010년에는 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이후 ECFA로 표기)을 체결했다.

마잉주의 재집권은 2008년 자신이 제시했던 선거공약의 꾸준한 실천과 대만 주민의 대다수가 공감하는 양안 교류협력의 객관적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중국과의 지나친 밀착과 경제종속화로 인한 대만의 자주 독립적 지위 약화를 우려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특히 민진당을 중심으로 1992년 중국과 합의한 ‘92 공식’(92 共識)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조, 편입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반 마잉주 여론은 자연스럽게 민진당 총통 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의 지지기반이 되었으며 특히 이들은 마잉주의 과도한 친중국노선이 대만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대만 공식’(臺灣 共識)의 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따라서 총통선거의 주요 쟁점은 대만의 정체성과 중국과의 관계설정, 양안간 경제협력의 범위와 수준,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안보 등에 집중되었다.

결국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자 대결 구도를 보였던 대만의 제13대 총통 선거는 국민당 후보인 마잉주 현 총통의 당선으로 매듭되었다.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는 청렴, 혁신의 개인적 이미지와 온건한 대만 독립·자주노선으로 마잉주를 맹추격했지만 대만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민진당의 태생적 한계와 과거 천수이벤(陳水扁)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만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즉 타이베이(臺北), 신베이(新北), 타이중(臺中) 등 국민당이 강세인 북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기존의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진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만 남부 지역의 득표율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마잉주 후보가 2012년 1월 15일 당선 확정 직후의 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대만 주민들은 정치, 안보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길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양상은 총통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8대 입법원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민당은 일단 대선과 총선에서 안정 기반을 확보했으며 특히 마잉주 총통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으로 집약되는 자신의 정책 방향과 리더십에 대한 재신임을 얻었다. 물론 마 총통이 당선 수락 연설에서 강조한 “당선의 기쁨은 하루 저녁으로 족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마잉주 정부는 산적한 대내외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비록 국민당에 패했지만 2008에 비해 대선과 총선에서 약진한 민진당과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세력 역시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1월의 대만 대선과 마잉주의 재집권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제2기 마잉주 정부가 지향하게 될 대내외 정책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각 정당별 정책 기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대선과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대만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차기 마잉주 정부가 추진하게 될 대내 정치, 대 중국, 외교·안보 관련 정책을 전망하고 이들 정책이 향후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대선의 주요 쟁점과 정당별 정책

2012년 대만 대선 과정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은 기본적으로 2008년 대선의 경우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대만이 처한 정치·경제·안보적 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년간 마잉주 정부의 대륙정책이 천수이볜 정부와 큰 차이를 보였고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양안관계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들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마잉주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점 때문에 기존 정책의 실효성, 성과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중심으로 집권당인 국민당, 제1야당인 민진당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¹⁾

1) 1996년 이후 직선으로 실시된 대만의 총통선거는 기본적으로 총통, 부총통 후보가 ‘running mate’(중국식 표현으로 ‘配’)로 함께 후보 등록을 하며 2012년 대선에서 국민당은 마잉주·우둔이(吳敦義), 민진당은 차잉원·수자첸(蘇嘉全), 친민당은 쑹주위·린루이슝(林瑞雄)을 각각 총통·부총통 후보로 내세웠다.

1. '92 공식'과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

1996년 제9대 총통 선거에서 처음으로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총통 선거는 대만의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장제스(蔣介石), 장징궈(蔣經國) 일가의 종신 총통제 시기는 물론 1988년 1월 이를 승계한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집권 중반까지 총통선거는 의례적인 행사였고 대만 국민들도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직선제가 실시되고 특히 민진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총통 선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또한 대륙정권인 국민당과 중국보다는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진당의 속성상 총통 선거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예외 없이 중국과의 관계 즉 양안관계와 대만의 자주적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되 '중화인민공화국' 혹은 '중화민국'으로 각자 표기한다는 '일중각표'(一中各表)를 핵심으로 하는 '92 공식'의 효용성과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등장했다. 양안의 경험 확대와 정치·안보적 안정에 주력 해 온 마잉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92 공식'을 적어도 현 단계에서 양안관계를 규율하는 최적의 원칙이자 합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민진당 차잉원 진영은 지나치게 중국에 경사된 '92 공식'을 대만의 정체성과 자주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만 공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국민당, 민진당을 불문하고 현재의 양안관계를 중국, 대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차원으로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정치적 지위의 향배가 대만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점에서 각 정당들은 이를 쟁점화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명시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1992년 중국과 합의한 '92 공식'에 입각하여 양안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인적 교류, 경제교류 등을 통해 중국과의 '원-원'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2008년 대선 공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지난 4년간 마잉주 정부는 대만의 고질적 현안인 소위 '통일과 독립'에 대한 논쟁과 상호대립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삼불'(三不), '삼통'(三通)관련 정책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하고 양안정부의 대리기구인 '해협회'(海協會), '해기회'(海基會)의 협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안교류의 제도화, 법제화를 추진했다. 그 밖에 대외적으로는 현실성 없는 유엔 가입 및 독립 추진보다는 실질적인 '독립 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실용적인 '활로외교'(活路外交)에 주력했다. 마잉주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2012년 대선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으며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호응

을 얻었다. 특히 과거 천수이볜 민진당 정부의 독립, 자주에 이미 식상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강대국화에 크게 위축되어 있는 대만 유권자들은 중국과의 실속없는 ‘통일·독립’ 논쟁보다는 양안의 평화와 공영 주장에 지지를 보냈다.²⁾

한편 민진당은 양안의 평화적 공존과 상호발전을 지지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소위 ‘92 공식’은 실체가 없고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쟁점화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확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새로운 ‘대만 공식’에 합의하여 향후 양안관계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양안관계에 대한 차이잉원 후보의 기본 구상과 연계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92 공식’이 대만 국민 대다수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국민당과 공산당이라는 특정 정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차이잉원 후보의 이러한 주장은 양안의 평화적 공존 필요성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하면서도 대만의 자주 독립적 지위가 원칙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내면적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대만 주민들은 ‘92 공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만 공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차이잉원 후보의 주장이 모호하고 심지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인식을 가졌다.³⁾ 사실 차이잉원의 주장은 양안관계의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유권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지 못했으며 심지어 민진당 정부의 부총통을 역임한 뤼슈롄(呂秀蓮)조차 선거 패배 직후 “차이 후보가 제기한 ‘대만 공식’이 실질적인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⁴⁾

결과적으로 ‘92 공식’과 ‘대만 공식’의 쟁점 대결에서 국민당이 유리한 입지를 점했고 이것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는 차이잉원의 개인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양안의 밀착 속에서도 대만의 정명·독립 추진이라는 당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민진당의 딜레마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민진당은 당헌에 대만독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

2) 마잉주는 2012년 1월 12일 선거 유세 과정의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양안관계는 대만의 부담(liability)이었으며 특히 양안관계의 악순환으로 인해 대만이 문제아(trouble-maker)로 인식되었지만 자신의 집권 이후 양안관계는 평화로워졌고, 그 결과 대만은 평화 조성자(peace-maker)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양안관계의 평화적 공영을 바라는 대만 유권자는 물론 미국,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겨냥한 것이다. 『聯合報』, 2012. 1. 13.

3) 특히 중국과의 경협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만의 기업주들은 차이후보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예를 들어 창룽(長榮)그룹 총재인 장룽파(張榮發)은 “민진당이 비록 공개적으로 대만독립(臺獨) 노선을 표방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는 소위 ‘대만 공식’을 통해 유권자를 기만하여 표를 얻고자 하며 ‘대만 공식’ 주장은 곧 대만독립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旺報』, 2012. 1. 13.

4) 뤼 전 부총통은 “92 공식의 맹점이자 치명적인 부분은 1992년 8월 1일 (대만)국가통일위원회가 ‘八一決議文’을 통해 대만과 대륙은 모두가 중국의 일부이라 점을 확인한 것이며 여야가 이를 직접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92 공식’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呂秀蓮：台灣共識空洞，蔡想選主席就說清楚』 『中廣新聞』, 2012.1.19.

하고 있으며 이는 비록 지금은 많이 퇴색했지만 그동안 민진당의 창당, 성장, 집권 과정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⁵⁾

2. 양안 경제협력의 범위와 성과

양안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각종 정책은 이미 대만 정치권의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즉 경제발전을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는 대만의 입장에서 경제발전의 성과를 좌우하는 차원으로 확대된 양안 경협문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절대다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사실 2008년 마잉주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과의 획기적인 경협 확대와 경제적 ‘윈-윈’을 통해 대만의 경제적 재도약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에서는 양안 경협의 확대 필요성과 함께 지난 4년간 마잉주 정부가 추진한 경제협력의 범위와 수준의 적정성, 성과에 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대만이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양안 경협 확대를 추진해 온 마잉주 정부가 2010년 실질적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ECFA’를 체결함으로써 그 성과 및 부작용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국민당은 마잉주 정부가 추진해 온 통상(通商)·통항(通航)·통우(通郵) 즉 ‘三通’의 확대 추진에 따른 양안 항공기의 직항, 중국인의 대만 관광 및 투자 확대, 인민폐의 대만 내 환전 허용, 중국 교육기관의 학력 인정과 중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정책이 양안관계의 전반적인 안정을 가져왔고 이러한 화해협력 분위기가 곧 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야권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ECFA’를 통해 2010년의 경제성장률이 10.8%에 달했고 중국과의 교역량도 전년대비 37% 증가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마잉주는 ‘ECFA’가 단순히 경제협력 확대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일종의 ‘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만의 정치·경제·안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⁶⁾

5) Shelley Rigger, *From Opposition to Power: Taiwan'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2001), pp. 217-218;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of DPP, *The Party of Democratic Reform* (Taipei, 2008), p. 8.

6) 이는 양안간 화해 협력의 제도화가 대만의 안보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마잉주의 기본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마 후보는 선거 기간의 각종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향해 천 여개의 미사일을 배치하여 위협하고 있지만 양안관계는 부단히 발전하고 있고 평화의 서광이 비치고 있으며 자신이 연임에 성공하면 대만 해협의 평화유지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兩岸和解制度化, 最佳防禦,” 『旺報』, 2012. 1. 13). ‘ECFA’가 대만경제에 미친 효과와 객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배기환, “중국-대만간

마잉주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는 양안의 경제협력이 대만의 경제 성장 및 양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ECFA’와 같은 양안의 지나친 경제적 밀착은 대만경제를 중국에 종속시킴으로써 결국 대만의 독립 자주적 입지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ECFA’ 체결로 인해 대만의 중소기업과 농업·어업 부문의 종사자들의 입지가 어려워지고 빈부격차와 실업률이 증가함으로써 대만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 밖에 ‘ECFA’가 체결된 2010년 대만의 경제성장률과 양안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에는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국민당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ECFA’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처럼 양안간 교류협력 확대의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ECFA’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마잉주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차이 후보간의 열띤 공방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지속되었지만 마잉주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그 이유는 첫째, 대만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험은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고 따라서 이를 좀 더 제도화,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둘째, 2008년 이후 마잉주 정부의 양안관련 정책이 많은 성과를 창출했고 이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평가 대체로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ECFA’가 중국에 불리하고 대만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중국을 반대하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의 강경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과거 천수이볜 정부가 대만기업의 대륙진출을 억제하여 중국시장의 선점 기회를 상실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⁷⁾ 다만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정에서 국민당정부가의 의도적으로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경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과도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대만 기업인들의 반민진당 정서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ECFA의 대만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국제경제정보』(한국은행), 제2012-3호(2012.1.9), pp. 5-10 참조.

7) 실제로 천수이볜 집권기 중국은 민진당 정부의 ‘정명’ 정책이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정책의 다른 표현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과 대만인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문홍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p. 17-18; Yun-han Chu, “Taiwan in 2007: The Waiting Game,” *Asian Survey*, Vol. XLVⅢ, No. 1, January/February 2008, pp. 124-125 참조). 따라서 대부분의 대만 기업인들은 차이잉원 후보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양안 경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III. 대선 결과의 주요 특징

1. 양안관계의 평화·안정 우선주의

2012년 1월 14일 대선 직후 예상보다 빠르게 마잉주의 당선이 결정되었으며 개표 초반부터 마 후보가 차이잉원 후보를 앞섰다. 특히 민진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중남부지역에서조차 국민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북부지역에서의 지지도 격차를 만회하지 못하면서 민진당의 ‘역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다. 결국 총유권자 1808만 6455명중 1345만 2016명이 참가한(투표율 74.38%) 투표에서 마잉주 후보가 689만 1139(51.6%)표를 얻어 609만 3578표(45.6%)를 얻은 차이, 36만 9588표(2.7%)를 얻은 쑹추위 후보를 누르고 13대 총통에 당선되었다.⁸⁾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만 유권자들이 무엇보다 평화와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사실 대만 주민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주 독립적 지위,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환경이다. 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들이 양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라는 하나의 중국원칙이 국제 사회의 엄연한 규범으로 인식되어 있고 더욱이 중국이 ‘G2’로 부상한 상황에서 중국이 원치 않는 대만의 자주 독립적 지위는 불가능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대만의 평화와 풍요는 보장되기 어렵다.

더욱이 절대다수의 대만 주민들은 정체성 회복에 대한 염원과 국민당 정권의 무능·부패·독재에 대한 염증이 결합되어 탄생시킨 천수이벤 민진당 정부가 기대와는 달리 대만의 정체성, 평화, 풍요 중 어느 것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처는 2008년 대선의 민진당 총통 후보였던 세창팅(謝長廷)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천수이벤이라는 이름 석자였다고 하소연한 것처럼 2012년 대선에서도 비현실적인 정체성, 자주성 강화 정책의 상징인 천수이벤의 이미지는 차이 후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⁹⁾ 즉 ‘92 공식’의 수용을 전제로 양안의 평화·공영을 주장한 마잉주

8) 보다 구체적인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대만 중앙선거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www.cec.gov.tw/zh_TW/P1/n0000000000000000.html (검색일: 2012.1.20) 참조.

9) 2008년 3월 대선 당시 민진당의 선거전략에 대해서는 Frank Chang-Ting Hsieh, *Bringing Progress and Hope to the Taiwanese People* (Taipei: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2008) 참조.

와 새로운 ‘대만 공식’ 합의를 통한 대만의 자주적 지위 강화를 주장한 차이잉원의 공방 속에서 마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

물론 대다수의 대만 주민들이 대만의 정체성과 자주 독립적 지위에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만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대립 요인인 소위 ‘외성인’(대륙출신)과 ‘본성인’(대만출신), 세대, 개별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대만 주민들은 국가와 비국가 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존재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독립’과 ‘통일’이라는 극단적인 대립 구조로 인식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유보하고 현실적인 양안의 평화·공영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대만 유권자들은 심정적으로 차이잉원의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마잉주의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양안 경제협력의 확대 유지 선호

대만의 정치적 지위와 양안의 정치적 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92 공식’과 함께 2012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한 이슈는 ‘ECFA’로 상징되는 양안 경협 확대와 관련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마잉주의 연임을 견인한 결정적 요인이다. 즉 양안 경협 확대의 무리한 추진과 ‘ECFA’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민진당의 집요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만 국민들은 마잉주의 경협 확대 노선을 지지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대만 기업과 100만을 상회하는 대륙 거주 대만인들은 양안의 경협 확대 여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만큼 마잉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이들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 형성 과정은 물론 선거 직전 약 20여만 명이 일시 귀국하여 선거에 참여할 정도로 마잉주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과거의 선거에서도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안 경협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와 같이 집단적,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대만의 많은 기업 총수들은 “마잉주의 당선은 곧 양안의 평화·공영이고, 차이잉원의 당선은 양안의 갈등과 경제적 퇴보”라는 주장을 통해 반민진당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 총수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노골적으로 마잉주 국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중국에 진출한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대륙투자를 규제하던 민진당

정부와 많은 갈등을 빚었던 왕용칭(王永慶) 대만 플라스틱 회장의 딸이자 현재 홍파덴(宏達電)의 회장인 왕쉐홍(王雪紅)은 선거 전날인 1월 13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마잉주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만 경제계의 마잉주 지지는 절대다수의 대만 기업들이 대륙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들의 영향력과 선택은 앞으로도 대만 대선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중국이 대만의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중국정부는 중국내 대만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제재 등의 관여를 통해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대만의 정치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의 경우에도 민진당은 중국정부가 대륙의 대만 기업인들의 귀국, 투표를 종용했으며 전세기 및 우대 항공권 제공, 대선 전후 중국인들의 대만 관광 금지 등으로 교통 편의를 지원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¹⁰⁾

IV. 마잉주 정부의 대내외정책 전망

1. 정치권의 화합과 대 국민 소통 확대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하고 사회적으로 갈등 요인이 많은 국가들의 대선은 대부분 정치권, 지역,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후유증을 남긴다.¹¹⁾ 대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역대 대선은 많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왔으며 따라서 당선자와 집권당의 우선적인 과제는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2012년 대선 이후 마잉주 정부는 이러한 과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첫째, 비록 마잉주 총통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2008년 대선과 비교할 때 민진당 후보

10) 예를 들어 차이잉원 후보의 측근으로서 대선 후보 전략을 전담한 샤오메이진(蕭美琴) 입법위원은 중국정부의 이러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알량한 경제수단을 동원하여 대만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林琮盛, “民進黨：九二共識不存在, 陸經濟干預大選,” 『旺報』, 2012. 1. 13: <http://news.chinatimes.com/focus/501010348/112012011300099.html> (검색일: 2012. 1. 28)

11) 대선 이후의 후유증은 천수이볜의 연임을 결정한 2004년 대선 이후 가장 극심하게 표출되었다. 당시 천 총통은 선거 전날의 충격 사건으로 여론의 동정표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으나 선거 이후 충격 사건 자작 의혹과 개표 부정 시비가 제기되면서 천수이볜 개인과 민진당 정권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사실 천 총통은 연임 이후 정치적 몰락의 길을 걸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는 결국 그를 ‘중신형 수감자’로 추락시켰다. 2004년 대만 대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문흥호, “2004년 대만의 총통 선거와 양안관계,” 『中蘇研究』, 제28권 제3호(2004. 5), pp.43-67 참조.

와의 격차가 221만 표에서 80만 표로 현격하게 줄었고 둘째, 대선과 병행 실시된 8대 입법원선거에서 국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민진당의 약진으로 지난 7대에 비해 입법원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¹²⁾

대선 이후 마잉주 총통 역시 이러한 대선, 총선 결과가 국민당의 독주체제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일정하게 작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2000년 이후 천수이볜 민진당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당이 재집권했지만 대만 국민들은 여전히 과거 50여년 지속된 국민당 정부의 초법적 독재체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한 많은 유권자들은 차이원 후보가 과거의 민진당 후보에 비해 온건하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 수행 경험과 능력, 국제화, 청렴한 이미지 등에서 손색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민진당의 태생적 한계와 양안관계의 현실상 결정적인 과오가 없는 한 마잉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대만 유권자들은 국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민진당의 정치적 역량을 잔존시켜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2012년 대선과 총선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마잉주 정부로서는 좀 더 낮은 자세로 정치권의 화합,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자 할 것이다. 실제로 마 총통은 당선 직후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2008년에 비해 매우 고전했다는 점을 실토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난 4년의 재임 기간 중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침체 등으로 국민들의 실업, 물가 등 경제관련 불만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고 둘째, 지난 대선 상대였던 세창팅에 비해 차이잉원 후보가 매우 선전했으며 셋째, 정부의 노력과 성과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¹³⁾ 또한 야당 대표들과의 정례적인 회합을 통해 정치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2008년 총통 취임 이후 대만독립을 강력하게 주창하는 '대만단결연맹' 소속 입법위원 출신인 라이싱웬(賴幸媛)을 양안교류를 총괄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에 임명한 것과 같이 일부 야권 인사들을 기용하는 정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2) 대만 입법원 선거는 지역구의원 79명(6개 원주민 지역구 포함), 비례대표 34명의 총 113명을 선출한다. 이번 8대 선거에는 국민당, 민진당, 대만단결연맹(臺聯 : Taiwan Solidarity Union), 친민당 등 11개 정당이 참여했으며 각 정당의 의석수는 국민당 64석(지역 48, 비례 16), 민진당 40석(지역 27, 비례 13), 대만단결연맹 3석(모두 비례), 친민당 3석(지역 1, 비례 2), 무소속(지역 2, 비례 1) 등이다. 참고로 지난 7대 입법위원의 경우 국민당은 8대보다 17석이 많은 81석이었고, 민진당은 13석이 적은 27석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통계는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및 입법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cec.gov.tw/zh_TW/IDX/indexP1.html; http://www.ly.gov.tw/03_leg/0301_main/leg_news (검색일: 2012. 1. 29)

13) 『中央社』, 2012. 1. 14.

물론 마잉주 총통의 이러한 발언을 당선자의 의례적인 인사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대만의 정당 간 세력 구도, 대만 국민들의 인식과 정당별 지지도 등을 고려할 때 마잉주 국민당 정부는 정치권의 화합, 국민들과의 소통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입법원 원내 세력을 확대한 민진당이 차이잉원의 주석 사임 이후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통해 2016년 대선을 겨냥한 당 체제개혁과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할 경우 국민당이 안정 기반을 성실할 수도 있다.¹⁴⁾ 실제로 대선 이후 대만의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국민당이 승리했지만 민진당 역시 주요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¹⁵⁾

2. 양안 교류협력의 확대와 제도화

2008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2년 대선에서 마잉주의 승리를 견인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양안의 평화·안정과 교류협력의 확대 전략이었다. 즉 ‘경제 살리기’와 ‘대륙으로 가자’를 접목시킨 구호 아래 중국을 적대와 단절의 대상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재설정하고, 이를 통해 대만의 경제부흥을 이룩해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 2008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면 이러한 비전의 적극적인 추진과 가시적인 경제성과의 산출, ‘ECFA’ 체결 등 교류협력의 안정화·제도화 실현은 2012년 대선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다. 따라서 중국과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강화와 제도화는 향후 마잉주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확대, 유지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잉주 정부가 추진하게 될 양안관계 관련 정책을 전망하면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첫째,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여 국민당과 민진당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 ‘92 공식’을 계속 수용함으로써 중국과의 평화·공영 노선을 지속할 것이다. 2012 대만 대선은 ‘92 공식’에 대한 국민투표(referendum)라고 평가할 수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양안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따라서 재신임을

14) 차이잉원 후보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진당이 대만의 중부, 북부지역에서 선전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록 선거에서 패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대만의 미래를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http://www.taipeitimes.com/News/front/archives/2012/01/15/2003523249/1> (검색일: 2012.1.29); <http://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12/01/16/2003523346> (검색일: 2012.1.29).

15) 孫麗菁 “立委選戰 藍綠各有斬獲,” 『臺灣時報』, 2012. 1. 15; 李明賢, “後馬接班 吳敦義、朱立倫最秀,” 『中國時報』, 2012. 01. 16; Shih Hsiu-chuan, “2012 ELECTIONS ANALYSIS: KMT wins election, while DPP sets agenda,” *Taipei Times*, Jan 15, 2012.

받은 마잉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다만 중국과의 지나친 밀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특히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득과 안정이라는 현실적 필요 때문에 대만의 정체성과 독립적 지위 강화 정책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양안의 협상 채널인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會)의 협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그동안 이 두 기구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안 최고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양안관계의 각종 현안을 협의하고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¹⁶⁾ 셋째, 2005년 련잔 국민당 명예주석과 후진타오 주석의 북경회담 등과 같이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소위 당 대 당(黨對黨) 회담 형식을 통해 중국과의 고위급 접촉을 확대해 갈 것이다. 물론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양안의 공식적인 정치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당선 직후 마 총통도 자신의 중국 방문과 양안의 직접적인 정치협상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 마잉주 정부는 제도개혁, 규제 완화 등 대내 경제적 정비와 양안의 경협 확대를 상호 결합한 소위 ‘마잉주노믹스’의 확대 실천에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ECFA’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양안의 경협 확대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대만경제의 국제적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사실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ECFA’ 체결을 강행하면서 아태지역에서 오직 대만과 북한만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만경제의 심각한 고립상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둘째, 선거 과정에서 ‘ECFA’의 부정적 측면으로 야권의 비판 대상이었던 대만경제의 대 중국 종속화 가능성, 국가차원의 경제성장대 대비되는 계층간 빈부 격차 심화, 실질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셋째, 경제교류 이외에도 양안의 관광, 인적 교류, 학술교류, 문화교류 등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양안관계의 균형자, 안정자로 기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잉주 정부의 양안 경협 확대 정책은 대만이 직면한 대내외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목적 전략이다.¹⁷⁾

16) 해기회와 해협회의 양안관련 협상 기능, 제도, 성과에 대해서는 문홍호, “중국과 대만의 협상 제도와 운영 사례 연구: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를 중심으로,” 『中國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중국연구소, 제48권(2010.3), pp. 311-330 참조.

17) 물론 마잉주 정부의 양안 경협 확대 정책과 이를 적극 지지하는 대다수 대만 주민들이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 함몰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6.4 천안문 사건 당시 북경대 학생으로서 시위를 주도했고 현재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왕단(王丹)은 “2012년 대만 대선이 경제적 성과를 최우선시하는 소위 ‘중국모델’(China model)에 납치되었으며 따라서 향후 마잉주 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국에 얽매일 수 밖에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했다. Shih Hsiu-chuan, “2012 Elections: ‘China model’

3. 실용외교와 대미관계의 내실화

2008년 마잉주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했던 외교정책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의 ‘생존 공간’ 축소와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심한 반발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사실상의 주권국가(de facto sovereign state)로서의 지위를 확대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천수이볜 민진당 정부의 비현실적 대외정책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를 좁혔고, 현 단계에서 대만의 독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성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임 이후 마잉주 정부의 대외정책 역시 형식보다는 내실, 이상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곧 마잉주식 실용외교를 의미하는 ‘활로외교’(活路外交)의 기본정신이다.¹⁸⁾

이와 관련하여 첫째, ‘92 공식’을 수용하고 양안의 평화·공영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비밀외교, 금전외교 등 중국과의 소모적 외교경쟁을 지양할 것이다. 사실 천수이볜 민진당 정부 집권 후반기에 빈발했던 각종 외교관련 추문은 대만의 국가적 위신을 크게 추락시켰다. 둘째,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각종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조용하지만 내실있는’ 외교에 주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대만이 세계보건기구 총회(WHA) 참여 자격을 얻은 것처럼 국가, 정부로서의 자격시비가 없거나 미약한 조직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¹⁹⁾

셋째, 대만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미관계의 안정적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다. 사실 2008년 마잉주 정부의 등장과 2012년의 연임은 미국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 2008년 당시 미국은 신헌법 제정, 독립 주장 등을 통해 중국의 극심한 반발을 야기한 천수이볜을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문제야로 인식했으며 그 대안으로 친미 성향이 농후하고 온건한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마잉주를 지목했다. 당시 마잉주 역시 미국에 대해 자신이 양안의 ‘평화조성자’ 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²⁰⁾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미국은 암

influencing Taiwan,” *Taipei Times*, Jan 16, 2012.

18) 문흥호, “국민당의 재집권과 대만의 대내외정책 변화 전망,” 『新亞細亞』, 15권 2호(2008년 여름, 통권55호), P. 120.

19) 실제로 대만 외교부는 2011년의 경우 32개 기술, 의료, 무역투자 부문의 186명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파견하여 각종 지원 활동을 벌였으며 2012년에는 세계 28개 국가에 총 31개의 기술 및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여 75개 항목에 달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http://news.chinatimes.com/politics/11050201/132012012500143.html>(검색일: 2012. 1. 30).

목적으로 중국과의 대립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민진당 후보보다는 자국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견지하는 데 적합한 마잉주를 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²¹⁾ 물론 이러한 점이 향후 마잉주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우선 마잉주가 양안의 평화·공영을 위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경사할 경우 중국과의 불협화음이 증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견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의 정치·안보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대만으로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대만문제에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구사하는 것과 유사하게 마잉주 역시 대 중국정책과 대 미국정책, 양안교류와 대 미교류, 대만해협의 평화 진작과 무기체제 현대화 등 상충될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만 나름대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국의 정치·경제·안보적 측면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V. 결론

2012년 1월의 대만 대선은 양안관계, 중·미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새롭게 변화하는 민감한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비록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서 대만의 국제적 위상이

-
- 20) 이는 민진당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의 전략적 충돌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대 대만정책을 재조정(restructuring) 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의 인식변화와 관련을 갖는다. 당시 대만정책 과 관련된 미국 내 여론과 대만정책의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논의에 대해서는 Ted Galen Carpenter, *America's Coming War with China: A Collision Course over Taiwa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pp. 143-145 참조.
- 21) 일례로 2002~2006년 '미국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 대만주재 대표를 역임 한바 있는 팔(Douglas H. Paal) 카네기재단 부회장(vice president for studies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대선 직전 대만 방문 과정의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의 대 중국 강경노선(tougher approach to dealing with China)을 우려하며 차이가 당선될 경우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만약 차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은 그가 양안의 평화·안정 유지에 주력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massively and quickly) 개입할 것이며, 마잉주가 당선될 경우 미국, 중국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쉴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팔이 민간인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경력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대선 직전 대만의 주요 언론들이 그의 발언을 대서특필함으로써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차이잉원 후보는 미국의 이러한 선거 개입 의혹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대선 이후 대만을 방문한 버가트(Raymond F. Burghardt) 'AIT' 회장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林琮盛, "馬英九：台美關係 緊密穩定," 『旺報』, 2012. 1. 6; Andrew Jacobs, "Former U.S. Diplomat Rattles Taiwan Before Election," *The New York Times*, January 13, 2012; 戎華儀, "包道格挺馬 民進黨向薄瑞光表遺憾," 『中廣新聞』, 2012. 1. 30.

미약하지만 그와 연계되어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이는 중국, 미국, 일본 등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주요 당사국들이 이번 대만 대선을 예의주시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서 국민당 마잉주 후보와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의 승패를 가른 문제는 대만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된 '92 공식'의 수용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상징하는 'ECFA'의 확대 유지에 관한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안은 2008년 이후 마잉주 정부가 추진한 최대 역점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찬반은 곧 마잉주에 대한 신임, 불신임으로 연계되었다. 결과적으로 마잉주 후보는 자신의 고백처럼 다소 고전은 했지만 재신임을 받았으며 이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대만 유권자들이 마잉주를 선택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양안관계의 평화·공영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불만과 대만의 독립적 지위에 대한 갈망의 표출을 일단 장기적 과제로 내면화하려는 대다수 대만 국민들의 현실적 판단이다. 둘째, 'ECFA'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대만의 경제 종속화 가능성, 빈부격차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대만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유일한 출구로서의 양안경협 확대 필요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안관계의 평화·안정을 전제로 한 경제협력 확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대만의 정체성, 자주성 강화를 주장하는 민진당의 '대만 공식'을 압도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중국의 반체제운동가 출신의 일부 분석가들은 대만인들이 '중국 모델'에 함몰되어 양안관계를 지나치게 '경제 우선주의'로 인식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제2 임기 중 마잉주 정부가 추진하게 될 대내외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선 이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의 대립과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왜냐하면 마잉주의 연임 성공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비해 민진당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줄었고 총선에서도 국민당은 입법원내 절대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평화·공영 원칙과 경협 확대 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이를 보조·지원하는 차원에서 해기회·해협회의 협상 기능 강화, 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고위 지도부간의 '당 대 당' 접촉을 확대해 갈 것이다. 셋째, 득보다 실이 많은 소모적 독립·자주외교보다는 실질적 주권국가로서의 국제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실용적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대미관계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미국 요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다만 마잉주 정부는 친미적 성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 동참 등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은 최대

한 자제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마잉주 정부는 현 단계 미국과 대만관계를 규율하는 ‘대만관계법’(TRA), 대만 주재 ‘미국대표부’(AIT), 미국 주재 ‘대만대표부’(TECRO) 등의 공식적인 기능을 내실화함으로써 중국과의 교류협력과 미국과의 내면적 안보협력을 병행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결국 마잉주의 연임 성공은 과거 국민당 지도부의 무기력하고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탈피한 마잉주 자신의 개인적 능력과 민진당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 단계 대만문제와 양안관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특성과 이에 연계된 중국, 미국 모두가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국민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역학 관계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양안관계가 중국에 의한 통일 혹은 대만의 독립으로 귀결되기 보다는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해 당사국 간의 현실적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현상유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1. 저서

문흥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서울: 폴리테이아, 2007).

Carpenter, Ted Galen. *America's Coming War with China: A Collision Course over Taiwa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of DPP. *The Party of Democratic Reform*, Taipei: DPP, 2008.

Hsieh, Frank Chang-Ting. *Bringing Progress and Hope to the Taiwanese People*. Taipei: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2008.

Rigger, Shelley. *From Opposition to Power: Taiwan'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2001.

2. 논문

문흥호. “중국과 대만의 협상 제도와 운영 사례 연구-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를 중심으로.” 『中國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중국연구소) 제48권(2010.3).

_____. “국민당의 재집권과 대만의 대내외정책 변화 전망.” 『新亞細亞』 15권 2호(2008년 여름, 통권55호).

_____. “2004년 대만의 총통 선거와 양안관계.” 『中蘇研究』 제28권 제3호(2004. 5).

배기환. “중국-대만간 ECFA의 대만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국제경제정보』 (한국은행) 제2012-3호(2012. 1. 9).

林琮盛. “馬英九：台美關係 緊密穩定.” 『旺報』 2012. 1. 6.

_____. “民進黨：九二共識不存在陸經濟干預大選.” 『旺報』 2012. 1. 13.

孫麗菁. “立委選戰 藍綠各有斬獲.” 『臺灣時報』 2012. 1. 15.

李明賢. “後馬接班 吳敦義、朱立倫最秀.” 『中國時報』 2012. 01. 16.

戎華儀. “呂秀蓮：台灣共識空洞, 蔡想選主席就說清楚.” 『中廣新聞』 2012. 1. 19.

_____. “包道格挺馬 民進黨向薄瑞光表遺憾.” 『中廣新聞』 2012. 1. 30.

Chu, Yun-han. "Taiwan in 2007: The Waiting Game." *Asian Survey*, Vol. XLV III, No. 1, January/February 2008.

Jacobs, Andrew. "Former U.S. Diplomat Rattles Taiwan Before Election." *The New York Times*, January 13, 2012.

Shih Hsiu-chuan. "2012 Elections Analysis: KMT wins election, while DPP sets agenda." *Taipei Times*, Jan 15, 2012.

Shih Hsiu-chuan. "2012 Elections: 'China model' influencing Taiwan," *Taipei Times*, Jan 16, 2012.

3. 신문 및 인터넷

『聯合報』, 2012. 1. 13.

http://www.cec.gov.tw/zh_TW/P1/n0000000000000000.html (검색일: 2012. 1. 20).

http://www.cec.gov.tw/zh_TW/IDX/indexP1.html (검색일: 2012. 1. 28).

<http://www.ly.gov.tw> (검색일: 2012. 1. 29).

<http://news.chinatimes.com/focus/501010348/112012011300099.html> (검색일: 2012. 1. 28).

<http://news.chinatimes.com/politics/11050201/132012012500143.html> (검색일: 2012. 1. 30).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Taiwan and the Policy Direction of Ma Ying-jeou's New Government

Moon, Heunggho

Keywords

Taiwanese presidential election, KMT, Ma Ying-jeou, Cross-strait relations, Peaceful coexistence

Taiwanese 2012 presidential election held as a two-way race between 'KMT' and 'DPP' ended up Ma Ying-jeou's victory. The DPP's Tsai Ing-wen candidate couldn't overcome her inferiority, even though she had tried to chase Ma Ying-jeou with her upright and innovative images. The background of Taiwanese people's choice of Ma Ying-jeou is that people considered it inevitable to keep 1992 consensus and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Ma Ying-jeou administration will firstly, after its reelection, continue on expanding its peaceful coexistenc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Secondly, it will accelerate 'party to party' contacts between KMT/CPP and nongovernmental negotiation between SEF (Straits Exchange Foundation) / ARATS (The 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 Thirdly, it will push forward with pragmatic diplomacy to reinforce its position as a 'de facto sovereign state', instead of exhausting independent diplomacy. Especially, even though, Ma Ying-jeou will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the U.S. as its first priority, he will try to refrain from policies that could irritate China such as a large purchase of the U.S. weapons or going along with the U.S.'s counter China policies.

[논문투고일 : 2012. 01. 30]

[심사의뢰일 : 2012. 02. 08]

[게재확정일 : 2012. 03. 06]